

회계학개론

※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문제에서 주어진 이자율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연(年)이자율이며,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다.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계산문제에서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의 답을 선택한다. 위의 조건 하에서 각 문제의 답지항 중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투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지 않고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 ② 종업원으로부터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이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③ 장래 자가사용할지 또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토지는 자가사용부동산이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④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리스이용자에게 보안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 ⑤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제거될 때까지 투자부동산으로 계속 분류한다.

2.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의 원가에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한다.
- ②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가상각은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단한다.
- ③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받을 보상금은 취득시점의 추정금액을 취득원가에 조정한다.
- ④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에 제거한다.
- ⑤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3.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종속기업인 투자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②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③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 ④ 지배기업이 소유한 종속기업 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이다.
- ⑤ 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 중지된다.

4. 기타포괄손익 항목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될 수 있는 것은?

- ① 최초 인식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손익
- ②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③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 ④ 무형자산 재평가잉여금
- ⑤ 관계기업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한 지분법기타포괄손익

5. 20×1년 12월 31일 (주)세무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자산의 90%가 소실되었다. (주)세무의 이용가능한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고자산의 추정 손실금액은? (단, (주)세무의 매출은 모두 신용거래이다.)

기초재고	₩150,000	당기매입액	₩12,000,000
매출채권(기초)	₩80,000	매출채권(기말)	₩120,000
손실충당금	(8,000) 72,000	손실충당금	(10,000) 110,000
○ 당기 매출채권 현금회수액: ₩11,500,000			
○ 당기 회수불능으로 인한 매출채권 제거 금액: ₩5,000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총이익률은 40%이며 큰 변동은 없었다.			

- ① ₩4,696,920 ② ₩4,700,700 ③ ₩4,704,480 ④ ₩5,223,000 ⑤ ₩5,268,000

6. (주)세무는 20×1년 초 가건물이 있던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기존의 가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건물의 취득원가는?

토지구입대금	₩200,000	토지소유권이전비	₩3,000
토지의 정지 및 측량비	50,000	진입로 공사비	30,000
건물신축 허가비	25,000	가건물 철거비	18,000
신축건물 공사원가	150,000	가건물 철거 부산물 매각수입	5,000
건축설계비	15,000	토지분 재산세	4,000
건물등록비	20,000	울타리 설치공사	13,000

- ① ₩185,000 ② ₩210,000 ③ ₩223,000 ④ ₩228,000 ⑤ ₩241,000

7.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한국의 의결권주식 7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다음 자료에 근거할 때, 20×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지배기업 소유주 당기순이익은?

○ 20×1년 1월 1일 연결분개			
(차) 자본금	200,000	(대) 투자주식	240,000
이익잉여금	30,000	비지배지분	90,000
재고자산	10,000		
유형자산	60,000		
영업권	30,000		
○ 위 분개에서 재고자산은 당기에 모두 처분되었으며, 유형자산은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20×1년도 (주)세무와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50,000과 ₩30,000이다.			
○ 20×1년도 중 (주)세무와 (주)한국 간의 내부거래는 없다.			

- ① ₩49,000 ② ₩55,600 ③ ₩62,600 ④ ₩64,000 ⑤ ₩71,000

8. 20×1년 초 설립된 (주)세무의 법인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법인세비용은?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00
○ 세무조정사항:	
- 정기에금 미수이자	₩20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150,000
- 벌금과 과태료	70,000
- 감가상각한도초과액	50,000
○ 법인세율은 20%로 유지된다.	
○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 ① ₩214,000 ② ₩244,000 ③ ₩258,000 ④ ₩288,000 ⑤ ₩298,000

9.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복구조건이 있는 연구용 설비(취득원가 ₩440,000, 잔존가치 ₩5,130, 내용연수 3년, 복구비용 추정금액 ₩100,000)를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실제 복구비용은 ₩120,000이 지출되었으며, 잔존 설비는 ₩3,830에 처분하였다. 20×3년도에 이 설비와 관련하여 인식할 총비용은? (단, 현재가치에 적용할 할인율은 10%이며, 기간 3년(10%)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7513으로 계산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근사치를 선택한다.)

- ① ₩180,391 ② ₩191,300 ③ ₩199,091 ④ ₩200,391 ⑤ ₩202,466

10. (주)세무는 선입선출법(실지재고조사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다. 20×1년 12월 20일 외상으로 구입한 재고자산이 선적지인도조건으로 기말 현재 운송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고, 동 재고자산은 기말 재고 실사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오류 수정 전 재무비율 산정 시 분모·분자 값은 모두 양(+))의 값을 갖는다.)

- ① 20×1년도 매출원가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높다.
 ② 20×1년도 총자산회전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③ 20×1년도 말 현재 당좌비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④ 20×1년도 말 현재 부채비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⑤ 20×1년도 총자산이익률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11. (주)세무의 20×1년 말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당좌개설보증금	₩10,000	당좌차월	₩1,200
당좌예금	()	우편환증서	4,000
차용증서	1,000	수입인지	500
소액현금	300	배당금지금통지서	1,500
종업원 가불증서	2,500	환매채	1,500
타인발행약속어음	10,000	정기예금	2,000

<추가자료>

○ 아래 사항을 조정하기 이전 은행측 당좌예금 잔액은 ₩12,800이다.

- 거래처에 상품 매입 대금 결제로 발행한 수표 ₩7,500이 아직 인출되지 않았다.
- 거래처에서 판매 대금으로 입금 통보한 ₩2,800을 (주)세무는 회계처리하였으나, 은행은 전산장애로 인해 입금처리하지 못했다.

○ 환매채의 취득일은 20×1년 12월 1일이며, 4개월 후 환매조건이다.

○ 정기예금은 1년 만기이며, 만기일은 20×2년 1월 31일이다.

- ① ₩12,100 ② ₩13,900 ③ ₩15,400 ④ ₩15,900 ⑤ ₩25,100

12. (주)세무의 20×2년도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현금흐름에 표시된 항목과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당기순이익	₩200,000	매출채권 감소	₩15,000
이자수익	20,000	매입채무 감소	12,000
이자비용	35,000	미지급급여 증가	6,000
법인세비용	40,000	이자지급	26,000
감가상각비	50,000	이자수취	18,000
기계장치처분이익	8,000	법인세납부	42,000
재고자산 증가	25,000		

- ① ₩223,000 ② ₩231,000 ③ ₩239,000 ④ ₩281,000 ⑤ ₩311,000

13. 금융자산의 재분류시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②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는다.
-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 ④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재분류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조정하며,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는다.
- 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한다.

14. (주)세무의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2,000주이다.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처음 전환사채(액면금액 ₩50,000, 전환가격 ₩100)를 발행하였고, 동 전환사채는 당기 중 전환되지 않았다. 20×1년 당기순이익이 ₩1,500,000, 전환사채 이자비용은 ₩120,000, 법인세율이 20%일 때, 희석주당이익은? (단, 계산에 필요한 기간은 월 단위로 한다.)

- ① ₩632 ② ₩638 ③ ₩672 ④ ₩750 ⑤ ₩798

15.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영업용 차량운반구(취득원가 ₩6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6년,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였다. 동 차량운반구는 매년 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며,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비례하여 조정하고 있다.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차량운반구와 관련하여 20×2년 인식해야 할 당기비용은? (단,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는 고려하지 않는다.)

20×1년 말	20×2년 말
₩550,000	₩374,000

- ① ₩16,000 ② ₩66,000 ③ ₩110,000 ④ ₩126,000 ⑤ ₩176,000

16. (주)세무는 (주)한국에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이자부약속어음(액면가액 ₩160,000, 5개월 만기, 표시이자 연 9%)을 받고, 이 어음을 2개월간 보유한 후 은행에서 할인하여 ₩161,518을 수령하였다. 동 어음할인 거래는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한다. 이 어음 거래에 적용된 연간 할인율은?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 ① 10.2% ② 10.4% ③ 10.5% ④ 10.6% ⑤ 10.8%

17. (주)세무는 재고자산을 소매재고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으로 가정하며 원가율은 저가기준으로 산정한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의 매출원가는?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	₩9,000	₩8,950
당기매입	64,410	94,100
매입운임	420	-
매입환출	230	-
매출액	-	98,000
종업원할인	-	2,000
순인상액	-	900
순인하액	-	700

- ① ₩61,200 ② ₩66,640 ③ ₩71,300 ④ ₩71,374 ⑤ ₩71,390

18.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취득원가 ₩550,000, 잔존가치 ₩10,000, 내용연수 10년)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2년 말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300,000으로 추정되어 손상을 인식하였다. 20×4년 말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340,000으로 회복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20×2년 말 장부금액은 ₩300,000이다.
 ② 20×2년에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142,000이다.
 ③ 20×3년에 인식하는 감가상각비는 ₩36,250이다.
 ④ 20×4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180,500이다.
 ⑤ 20×4년에 인식하는 손상차손환입액은 ₩112,500이다.

19. (주)세무는 20×1년 초 5년 만기 사채를 발행하여 매년 말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다. 20×2년 말 이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 후 사채의 장부금액이 ₩84,000이 되었다면, 20×3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차)	이자비용	8,200	대)	사채할인발행차금	2,000
			현	금	6,200

- ① ₩86,200 ② ₩86,600 ③ ₩87,000 ④ ₩87,200 ⑤ ₩87,600

20.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기계장치를 취득(취득원가 ₩3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4년)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3년 1월 1일 동 기계장치의 부품 교체에 ₩10,000을 지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 부품교체는 자본적지출로 인식한다.
- 부품 교체시점에서의 회계추정 변경사항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잔존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500

동 기계장치의 20×2년 감가상각비와 20×3년 말 장부금액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20×2년 감가상각비 20×3년 말 장부금액

- | | | |
|---|---------|---------|
| ① | ₩9,000 | ₩15,500 |
| ② | ₩9,000 | ₩17,100 |
| ③ | ₩9,750 | ₩15,500 |
| ④ | ₩9,750 | ₩17,100 |
| ⑤ | ₩12,000 | ₩17,100 |

21. (주)세무는 공장건물을 20×1년 1월 1일 착공, 20×2년 10월 말에 완공하였다. 공장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모든 차입금의 이자는 1년 후급조건이며 월할계산한다.)

○ 공사비 지출

일자	금액
20×1년 1월 1일	₩10,000
20×1년 7월 1일	7,000

○ 차입금 현황

종류	금액	이자율	차입기간
특정차입금	₩10,000	5%	20×1년 1월 1일 ~ 20×2년 12월 31일
일반차입금A	1,000	8%	20×0년 8월 1일 ~ 20×2년 7월 31일
일반차입금B	3,000	6%	20×1년 9월 1일 ~ 20×3년 10월 31일

- ① ₩640 ② ₩728 ③ ₩745 ④ ₩760 ⑤ ₩990

22. (주)세무의 보통주(주당 액면금액 ₩5,000, 주당 발행가 ₩6,500)와 관련된 거래가 다음과 같이 발생했을 때, 20×1년 4월 30일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회계처리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거래일자	주식수	주당 취득금액	주당 재발행금액
20×1년 3월 1일	50	₩6,800	-
20×1년 4월 1일	20	5,600	-
20×1년 4월 21일	30	-	₩6,900
20×1년 4월 30일	10	-	4,800

(차변)

(대변)

- | | | | |
|----------|--------|------|--------|
| ① 현금 | 48,000 | 자기주식 | 68,000 |
| 자기주식처분이익 | 3,000 | | |
| 자기주식처분손실 | 17,000 | | |
| ② 현금 | 48,000 | 자기주식 | 68,000 |
| 자기주식처분손실 | 20,000 | | |
| ③ 현금 | 48,000 | 자기주식 | 56,000 |
| 자기주식처분손실 | 8,000 | | |
| ④ 현금 | 48,000 | 자기주식 | 50,000 |
| 감자차익 | 2,000 | | |
| ⑤ 현금 | 48,000 | 자기주식 | 50,000 |
| 감자차손 | 2,000 | | |

23. 자본 및 자본유지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본유지개념은 이익이 측정되는 준거기준을 제공하며, 기업의 자본에 대한 투자수익과 투자회수를 구분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 ② 자본을 투자된 화폐액 또는 투자된 구매력으로 보는 재무적 개념 하에서 자본은 기업의 순자산이나 지분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 ③ 자본을 불변구매력 단위로 정의한 재무자본유지개념 하에서는 일반물가수준에 따른 가격상승을 초과하는 자산가격의 증가 부분만이 이익으로 간주된다.
- ④ 재무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하며, 실물자본유지개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⑤ 자본을 실물생산능력으로 정의한 실물자본유지개념 하에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변동은 해당 기업의 실물생산능력에 대한 측정치의 변동으로 간주되어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일부로 처리된다.

24. (주)세무는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으며, 20×2년 초 전환사채 전부를 ₩1,070,000(상환시점의 공정가치)에 조기상환하였다. 이 전환사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현가계수표를 이용하며, 현가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액면금액: ₩1,000,000
- 표시이자율: 연 4%
- 일반사채의 시장수익률: 연 8%
- 이차지급일: 매년 12월 31일
- 만기상환일: 20×3년 12월 31일
- 조기상환일 일반사채의 시장수익률: 연 15%
- 상환할증금: 없음
- 발행 시 주식전환 옵션은 전환 조건이 확정되어 있다.
- 현가계수

기간 \ 할인율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15%	8%	15%
2	0.85733	0.75614	1.78326	1.62571
3	0.79383	0.65752	2.57710	2.28323

- ① 발행 당시 전환권대가는 ₩103,086이다.
- ② 20×1년도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31,753이다.
- ③ 20×2년 초 장부금액은 ₩928,667이다.
- ④ 20×2년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일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821,168이다.
- ⑤ 20×2년 전환사채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사채상환손실은 ₩38,247이다.

25. 농림어업 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초의 인식시점에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 ② 생물자산을 이전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였다면 처분시점까지 계속하여 당해 생물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③ 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④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와 같이 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은 생산용식물이 아니다.
- ⑤ 과일과 목재 모두를 얻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는 생산용식물이다.

26.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20×1년에는 4,000단위를 생산하였고, 20×2년에는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5,000 많았다. 20×2년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수량/금액
기초제품 수량		()단위
생산량		4,000단위
기말제품 수량		1,200단위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250
	직접재료원가	80
	직접노무원가	40
	변동제조간접원가	30
	변동판매관리비	10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		₩200,000
고정판매관리비(총액)		100,000

(주)세무의 20×2년도 기초제품 수량은? (단, 20×1년과 20×2년의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과 원가구조는 동일하고, 기초 및 기말 제공품은 없다.)

- ① 500단위 ② 650단위 ③ 700단위 ④ 950단위 ⑤ 1,700단위

27.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기본원가(prime costs)의 50%를 예정 배부한다. (주)세무는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원가요소기준 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한다. 9월의 기본원가, 매출액과 배부차이 조정 후 기말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기본원가	₩750,000	매출액	₩1,000,000
기말재고품	120,000	기말제품	180,000

9월의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율이 80%일 때, 배부차이는? (단, 기초재고 자산은 없다.)

- ① ₩10,000 과대배부 ② ₩15,000 과소배부 ③ ₩15,000 과대배부
④ ₩25,000 과소배부 ⑤ ₩25,000 과대배부

28. (주)세무는 원가행태를 추정하기 위해 고저점법을 적용한다. (주)세무의 경영자는 추정된 원가함수를 토대로 7월의 목표이익을 ₩167,500으로 설정하였다.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추정 목표매출액은? (단, 당월 생산된 제품은 당월에 전량 판매되고, 추정 목표매출액은 관련범위 내에 있다.)

월	총원가	총매출액
3월	₩887,000	₩980,000
4월	791,000	855,000
5월	985,500	1,100,000
6월	980,000	1,125,000

- ① ₩1,160,000 ② ₩1,165,000 ③ ₩1,170,000 ④ ₩1,180,000 ⑤ ₩1,200,000

29. (주)세무는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conversion costs)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1년 직접재료원가에 대한 총완성품환산량은 20,000단위, 전환원가에 대한 총완성품환산량은 18,000단위, 완성품 수량은 15,000단위이다. 20×1년 기말재고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 ① 50% ② 60% ③ 75% ④ 80% ⑤ 90%

30.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세무는 전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원가흐름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 20×1년과 20×2년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20×1년	20×2년
제품 생산량	1,500단위	1,750단위
제품 판매량	1,200단위	()단위
기말제품 수량	()단위	150단위
제품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8	₩40
고정제조간접원가	₩48,000	₩70,000

(주)세무의 20×2년도 매출원가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 ① ₩147,000 ② ₩148,000 ③ ₩148,600 ④ ₩149,000 ⑤ ₩149,400

31. (주)세무는 보조부문 A, B와 제조부문 P, Q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와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사용부문 제공부문	보조부문		제조부문		용역생산량
	A	B	P	Q	
A	10%	40%	20%	30%	1,000단위
B	20%	10%	40%	30%	2,000단위
○ 보조부문 A의 원가: ₩50,000 + ₩70 × 1,000단위					
○ 보조부문 B의 원가: ₩30,000 + ₩150 × 2,000단위					

(주)세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조부문을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하던 중, (주)한국으로부터 보조부문 A가 생산하던 용역을 단위당 ₩150에, (주)대한으로부터는 보조부문 B가 생산하던 용역을 단위당 ₩200에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주)세무가 보조부문의 용역을 외부에서 구입하더라도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하는 고정원가를 회피할 수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주)세무는 보조부문 A와 B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주)세무가 보조부문 A를 폐쇄하고 (주)한국의 제의를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이 ₩7,000 증가한다.
 ③ (주)세무가 보조부문 B를 폐쇄하고 (주)대한의 제의를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이 ₩20,000 감소한다.
 ④ (주)세무가 보조부문 A의 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할 경우,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은 단위당 ₩120이다.
 ⑤ (주)세무가 보조부문 B의 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할 경우,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은 단위당 ₩170이다.

32. (주)세무는 주산품 A, B와 부산품S를 생산한다. 당기 중 발생한 결합원가는 ₩9,500이다.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NRV)를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부하며, 당기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총액)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	생산량	판매량
A	₩2,000	₩40	200단위	180단위
B	1,000	20	250	200
S	500	15	100	90

주산품B의 매출총이익은? (단, 기초 재고자산은 없으며, 부산품S는 생산시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로 인식한다.)

- ① ₩480 ② ₩560 ③ ₩580 ④ ₩750 ⑤ ₩810

33.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20×2년도 기초제품 수량은 100단위, 생산량은 2,000단위, 판매량은 1,800단위이다. 20×2년의 제품 판매가격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금액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250
	직접재료원가	30
	직접노무원가	50
	변동제조간접원가	60
	변동판매관리비	15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		₩50,000
고정판매관리비(총액)		10,000

20×2년도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초변동원가계산(throughput costing)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금액은? (단, 20×1년과 20×2년의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과 원가구조는 동일하고,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 ① ₩10,000 ② ₩11,000 ③ ₩20,000 ④ ₩22,000 ⑤ ₩33,000

34. (주)세무는 직접재료를 투입하여 두 개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제1공정에서는 직접재료 1톤을 투입하여 제품A 400kg과 중간제품M 600kg을 생산하며, 제2공정에서는 중간제품M을 가공하여 제품B 600kg을 생산한다. 직접재료는 제1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며, 모든 공정에서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1공정에서는 변동전환원가가 ₩200/톤, 고정원가는 ₩70,000이 발생하였으며, 제2공정에서는 변동전환원가가 ₩1,200/톤, 고정원가는 ₩58,000이 발생하였다. 직접재료 구입원가는 ₩2,000/톤이며, 제품 A와 B의 판매가격은 각각 ₩3,000/톤, ₩5,000/톤이다. 생산된 모든 제품이 전량 판매된다고 가정할 경우, 각 제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제품A	제품B		제품A	제품B		제품A	제품B
①	40톤	60톤	②	48톤	72톤	③	50톤	75톤
④	60톤	90톤	⑤	80톤	120톤			

35. (주)세무는 두 종류의 제품 A와 B를 생산·판매한다. 두 제품의 월간 예상 판매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제품A	제품B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50	₩45
	변동제조원가	32	25
	고정제조간접원가	5	7
	변동판매관리비	8	5
	고정판매관리비	2	2
기계시간당 생산량		4단위	2단위
월간 예상수요량		120단위	80단위

(주)세무의 월간 최대 사용가능한 기계시간은 50시간이다. (주)세무가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월 최적 제품배합은? (단, 월간 고정원가 총액은 일정하다.)

	제품A	제품B		제품A	제품B		제품A	제품B
①	40단위	80단위	②	60단위	70단위	③	80단위	60단위
④	100단위	50단위	⑤	120단위	40단위			

36. (주)세무는 20×1년에 제품A를 5,000단위 생산하여 전량 국내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제품A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0,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7,0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1,000이다. (주)세무는 20×1년 초에 해외 거래처로부터 제품A 3,000단위를 단위당 ₩8,0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해외 거래처의 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제품A 1단위당 부품B(단위당 외부구입가격: ₩500) 1단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고, 20×1년도 국내시장 판매량을 350단위 감소시켜야 한다. 특별주문과 관련된 판매관리비는 주문수량에 관계없이 ₩300,000 발생한다. (주)세무가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20×1년도 예산이익의 증가(또는 감소) 금액은? (단,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한다.)

- ① ₩300,000 증가 ② ₩420,000 증가 ③ ₩500,000 증가
④ ₩550,000 감소 ⑤ ₩800,000 감소

37. (주)세무는 20×1년 초에 설립되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피커를 생산하고 있다. 스피커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0이며 연간 고정원가 총액은 ₩1,500,000이다. (주)세무는 당기에 국내시장에서 스피커 300단위를 판매하고, 국내시장에서 판매하고 남은 스피커는 해외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스피커의 국내 판매가격은 단위당 ₩10,000이며, 해외 판매가격은 단위당 ₩9,000이다. 해외시장에 판매하더라도 원가구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법인세율이 20%일 경우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 ① 350단위 ② 375단위 ③ 400단위 ④ 450단위 ⑤ 500단위

38. (주)세무는 세 개의 제조부문(P1, P2, P3)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부문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분하고 있다.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사용부문 제공부문	제조부문			보조부문	
	P1	P2	P3	S1	S2
S1	40%	20%	20%	-	20%
S2	30%	30%	30%	10%	-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 P2, P3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50,000, ₩120,000, ₩120,000일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이전의 각 보조부문 S1과 S2에 집계된 원가는?

- | | | | |
|------------|-----------|------------|-----------|
| <u>S1</u> | <u>S2</u> | <u>S1</u> | <u>S2</u> |
| ① ₩100,000 | ₩290,000 | ② ₩120,000 | ₩270,000 |
| ③ ₩150,000 | ₩300,000 | ④ ₩270,000 | ₩120,000 |
| ⑤ ₩300,000 | ₩150,000 | | |

39.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1년의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은 ₩300,000이고,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800,000이다. (주)세무는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으로 직접노무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기준조업도는 직접노무시간 1,000시간이고, 20×1년에 실제로 투입된 직접노무시간은 850시간이다. 20×1년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가 ₩80,000(불리)할 경우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 ① ₩15,000 유리 ② ₩45,000 유리 ③ ₩10,000 불리
 ④ ₩15,000 불리 ⑤ ₩45,000 불리

40. (주)세무는 직접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직접재료의 20%가 제조과정에서 증발되는데, 이러한 증발은 정상적이며 제조과정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완성품 1단위에는 직접재료 0.1kg이 포함되어 있고, 당기에 2,000단위가 완성되었다. 당기에 투입된 직접재료는 190kg, 기말재공품(전환원가 완성도 25%)은 38kg, 기초재공품은 90kg이었다.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단, 공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① 25% ② 30% ③ 40% ④ 50% ⑤ 60%

민 법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 ②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③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④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농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 ⑤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42.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재산관리인의 개입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3.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 한정된다.
- ②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③ 대법원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④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44. 제한능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 ②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④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 ⑤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45.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할 수 있다.
-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 ③ 만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 ④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46.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③ 태아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 ④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태아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
- ⑤ 태아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된다.

47.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 ②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 ③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 ④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⑤ 어느 행위에 있어 거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추정한다.

48.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 ① 동의권 ② 취소권 ③ 상계권
④ 계약해제권 ⑤ 채권자취소권

49.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실종기간은 위난종료시로부터 1년이다.
-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며, 실종선고 그 자체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이 사망의 효과는 계속된다.
- ③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 ④ 제1순위 상속인이 있어도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 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피상속인의 딸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만료되었다면 그 딸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50.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특허권, 상표권에 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제한된다.
- ③ 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하여 사망을 간주하는 제도이다.
- ④ 동시사망 시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
- ⑤ 실존인물인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존한다고 추정되고, 사망의 사실 및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것을 전제로 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5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③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비법인사단의 행위로 보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항의 결의에 찬성한 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⑤ 법인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대표기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52.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상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될 수 없다.
- ②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③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④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은 법정과실이다.
- ②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③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과실에 해당한다.
- ④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⑤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54.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정관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의 규정이 없어도 변경이 가능하다.
- ③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 ④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 ⑤ 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5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경우
- ② 수증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로부터 매매목적물을 증여받은 경우
- ③ 해외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 ④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56.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구성원이 1인이 된 것은 교회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 ② 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민법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더라도 유효하다.
- ④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법인이 파산한 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57.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설립자가 사무소소재지를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없다.
- ③ 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④ 재단법인의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연도를 정한 재단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당사자 일방이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 ②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가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④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도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⑤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도 그 후 외부적 환경에 의하여 현저한 급부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된다.

59.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가 수인인 경우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 ② 사원총회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 ③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단법인은 이사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감사를 두어야 한다.
- ④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60. 비범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한다.
- ② 종중은 관리 중인 분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③ 부동산은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 ④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분배가 가능하다.
- ⑤ 비법인사단의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6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기본대리권에는 법정대리권도 포함된다.
- ② 대리권이 소멸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③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기본대리권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 아니어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62.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사망
③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④ 대리인의 한정후견의 개시
⑤ 대리인의 파산

6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동기의 착오의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었다면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해석되지 않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②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라도 표의자에게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착오자에게 있다.
 - ⑤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6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③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았어야 한다.
 - ④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발신한 이상,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 ⑤ 제한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6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대방이 해약을 가하겠다고 고지하였지만 표의자가 그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의사표시에는 하자가 없다.
 - ②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무효이다.
 - ③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기망행위여야 한다.
 - ④ 설명의무가 있더라도 단순히 고지하지 않고 침묵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 ⑤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6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②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권리의 성질이 변하더라도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 ④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 ⑤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을 받고서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그 매매계약이 대리인의 잘못으로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이 부담한다.

67.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68.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응답을 최고할 수 없다.
- ②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악의인 경우에도 그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본인은 무권대리행위 중 그 일부에 대한 추인만으로 그 행위를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
- ④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서 하여야 효력이 있다.
- ⑤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철회한 후에도 본인은 추인함으로써 그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

69.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③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 ④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⑤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은 본인의 임의대리인이다.

70. 통정허위표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을 매수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에게서 목적물을 매수한 악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그 목적물을 매수한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매도인은 전득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7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③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 ④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건은 해제조건이다.
- ⑤ 반사회질서의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72.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대차의 경우 차주	ㄴ. 무상임치의 경우 수치인
ㄷ. 이자부소비대차의 경우 차주	ㄹ. 이자부소비대차의 경우 대주
ㅁ. 무이자부소비대차의 경우 차주	

- ① ㄴ, ㄷ, ㄹ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ㄹ, ㅁ
-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73.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간의 계산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 다른 정함이 있으면 민법상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기간을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③ 기간을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④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⑤ 일정한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74.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③ 변제기가 불확정 기한인 때에는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④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⑤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75.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효인 법률행위가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③ 법률행위가 불성립된 경우에도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④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76.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 ①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② 연예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③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④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⑤ 약사의 조제에 관한 채권

7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한다.
- ②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④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상속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는 자가 이의를 보류하면서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78. 미성년자인 甲은 자신의 자전거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의 법정대리인 丙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丙이 乙에게 자전거를 인도한 경우
- ② 丙이 乙에게 자전거 대금을 청구한 경우
- ③ 매매계약체결 후 10년이 지난 경우
- ④ 甲이 丙의 동의를 받고 추인한 경우
- ⑤ 乙이 丙에게 자전거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79.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다.
-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종속된 권리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 ④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
- 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80.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점유권
- ②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상황에서의 공유물분할청구권
- ③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⑤ 피담보채권이 존속하고 있는 담보물권